

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2월 8일 (제103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끈기

옛말에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난다'는 뜻으로, '때가 오면 일이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조건이 갖춰지면 일은 자연히 성사된다, 학문을 열심히 닦아 조예(造詣)가 깊어지면 명성(名聲)이 절로 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자연스레 이뤄지고, 자연스레 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이 흐를 때 도랑이 나고, 도랑에 지속적으로 물이 흐를 때 내(川)가 되고, 내(川)에 물이 꾸준히 흐를 때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법이다.

뭔가를 성취하거나 과업을 이룰 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 반복되어 습관화 될 때 도랑이 나고 도랑이 지나 내가 되고, 내가 지나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성공의 비법은 단순하다. 지속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다 말다 하면 도랑은 말라 흔적도 없게 된다. 거북이와 토끼를 보자. 재주 많은 토끼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력, 끈기가 없어서다. 그러나 더디고 부족했지만 거북이는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누군가 천재는 변장한 끈기라고 했다. 에디슨이 천재여서 많은 발명품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도 하셨다(마24:13).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또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도랑 같은 삶이 내(川)가 되고, 내(川) 정도의 삶이 강 같은 삶이 되고, 더욱 기도하면 강 같은 삶이 바다처럼 풍요롭게 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운동하고, 계속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밟힐 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포기하지 않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포기는 자살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압도(壓倒)’. 추계산상집회를 통해 목사님이 단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한 단어로 압축해봤다. 세계 최대의 이구아수 폭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장엄한 대자연 앞에 압도당했던 느낌, 루브르 박물관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우며 걸려있던 대작(大作) 앞에 섰을 때의 충격처럼 완전히 압도당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으로부터 아래로 넘쳐흘러 예루살렘 기도원 대성전은 생명수로 가득 차올랐고, 불을 끄고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사력을 다하며 기도하는 소리는 대성전 천장을 뚫고 온 우주로 울려 퍼지는 듯하였다.

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할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요5:43),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요17:12). 곧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비를 멈추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 세계를 다니며 외쳐왔습니다. 그로 인해 목사에서 제명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전 삶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 불러올려 새벽까지 기도시키



성령의 대역사로 총만했다 (2019 추계산상집회)

목사님은 사흘 내내 새벽 1시를 넘겨 2시가 되도록 사력을 다하셨다. 첫날, ‘네가 절박한 심정을 아느냐?’는 제목으로 심장이 터지듯 불을 토하셨고, 둘째 날에는 ‘너에게 맞는 것을 찾아 구하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설교하시며 예수이름의 비밀을 밝히 가르치셨다.

특히 마지막 날 밤, 목사님은 왜 당신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성경을 찾아가며 낱말이 밝혀주셨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이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들은 이 비밀을 몰랐기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4:18)며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행5:41).

나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 역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력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태양을 가리고

며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도 여러분을 1군 선수로 훈련시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감독과 코치가 되어 예수의 제자를 삼는 능력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세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세요 능력입니다. 모두가 첫사랑을 되찾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8:1~18)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포기하느냐?

지난주 기도원집회를 마친 날, 저는 황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때 같으면 수고한 기도원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고 올라왔을 텐데,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바로 상경했습니다.

가서 보니 어머니가 생각보다 위급한 상태인지라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관절에 금이 간 상태였고, 폐와 간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사는 중환자실에 즉각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긴 의사의 소견을 요약하면 연세가 있으니 이제 떠나 보내드릴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환자를 많이 봐왔고, 그런 환자들이 대략 어찌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가족 대표인 저에게 그리 권유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저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갑자기 ‘아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환자실 입원을 거부하고 일반병실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의사를 설득한 결과 일반병실로 어머니를 입원시켜 매일 병원을 드나들며 기도해드렸더니 지금은 어머니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칠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라

늘 ‘포기는 자살이다’라고 설교한 저도 의사의 권유에 어머니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연세가 94세이니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어렵다는 의사의 말은 타당성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다, 살리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포기시키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건강한 것을, 행복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에 마귀는 전심전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말입니다. 마귀는 의사처럼 통계를 들이대며 설득하기도 하고, 때론 위로를 가장해서 포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음을 한탄할 때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여보, 나는 아들보다 당신 하나면 돼(삼상1:8).”라고 위로합니다. 이 말에 한나가 아들 갖기를 포

기했더라면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달리 써졌을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왔던 애굽군대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절대 마귀와 귀신은 목적인 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려고 애쓰셨고(요13:1), 죄인인 우리도 구원하시길 포기하지 않으셨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지는 날까지 귀신을 쫓으신다고 하셨습니다(눅13:32).

여러분, 세상사 일체유심(一切唯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포기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키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뵈고야 말리라’는 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작고, 세리 주제에 사람들 사이에 낄 처지도 아니니까 포기하지.’ 했더라면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면이 구겨지든 말든 뽕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기필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쫓더니 그의 후계자가 되어 정말 갑절

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도 ‘꼭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고(막10:46~52),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 취급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딸이 고침을 받았으며(막7),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등등, 이 모두가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에게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고 일어나 마친 내 소원하던 것을 이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38).

인생은 링 위에 선 권투선수와 같습니다. 싸우다 보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KO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는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 기도원 문제로 재판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쳤거든요. 그때 지금은 작고하신 믿음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대법원에 상소했고, 승리해서 오늘날의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이 기도의 성산이 된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빌4:13). 주

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십니다. 학력이나 문벌이나 나이나 미모를 가진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뜰이나 밭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시키려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일 때 히스기야처럼 애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임계점을 넘을 때 물이 끓어오르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을 환하게 밝히면 어둠이 다가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들들 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새벽 2시가 가깝도록 기도를 시키고 훈련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을 보세요. 프로의 세계는 냉혹해서 미친 듯이 연습하지 않으면 1군에서 2군, 3군으로 바로 밀려납니다. 1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연습에 나태하고 포기하려는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임계점을 넘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2군, 3군으로 퇴출된 자들은 감독이나 욕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지 못한 나를 욕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도 냉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부귀영화, 행복, 건강을 다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욕해야지, 세상 탓, 정부 탓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칩니까? 그러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직장문제도, 사업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엘리야가 3년 6개월간 달힌 하늘을 열 때 절박하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이뤄집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에 분명히 그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훗날 멋진 추억담이 될 것입니다. “Don’t ever give up!”(절대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9). 할렐루야!

사랑으로

예수를 처음 믿고 읽은 책 중에 아르헨티나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여러 시리즈물이 있었다. 지금은 제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율법적인 신앙과 성령 충만한 신앙의 차이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 대목에 무릎을 친 기억이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미가 설거지해라, 청소 좀 도와줘라 하면 입이 툭 튀어나와선 마지못해 겨우 시늉만 하다 들어가기 일쑤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그 망둥이 같은 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예쁘게 차려입고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접으며 집안을 정리한다. 게다가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말이다. 이 도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 오후에 보이프렌드가 집에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르티즈 목사님의 설명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자원적인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일은 그 어떠한 일도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다. 마냥 기쁘고 설렌다.

신앙의 여러 사안들을 율법이니 뭐니 따질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스스로를 점검해볼 때도 아주 유용하다. 교회 가는 일이나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 십일조, 첫열매, 감사헌금 등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헌신에 대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는지 자문자답해보면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가끔 보면 첫열매를 드리는 일이나 십일조를 드리는 일에 어떻게, 어디까지 드러야하나 고민하는 사람을 본다.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 성경은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리라고 했지 정확히 세분하여 조목조목 설명하진 않는다. 특히 예수님은 드리는 행위보다 의와 인과 신, 곧 마음을 더 중시하셨다(마 23:23).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과 의무감에 억지로 내는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까? ‘사랑에는 반드시 물질이 수반된다.’고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신다. 자명한 이치다.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무엇이든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사랑은 다 가짜다. 주머니가 열리는 만큼 이 사랑의 크기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짐하듯 믿음의 선포를 하곤 한다. 그러나 걱정 말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언제나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사랑은 그런 것 아닐까? 밤이 새도록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무엇이든 나누고 싶은 마음. 행복은 그 충만한 마음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선물 아닐까? 모두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이 주 안에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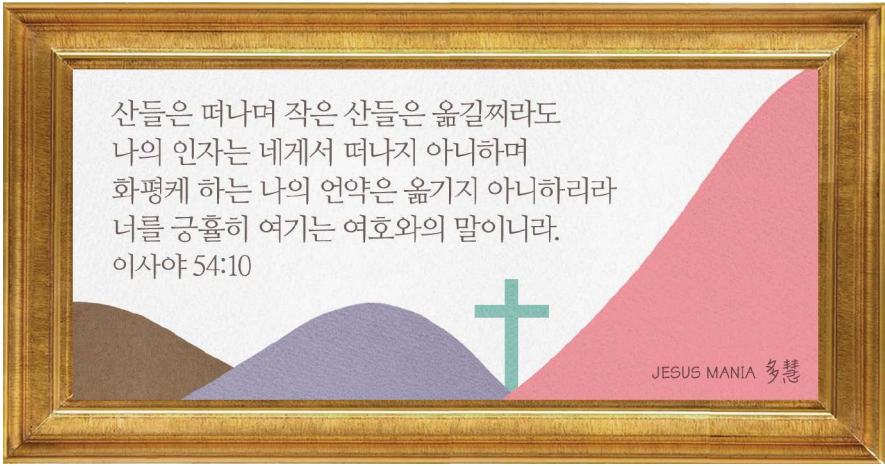
Henry Han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공자는 ‘성상근야 습상원야(性相近也 習相遠也)’라고 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후천적으로 늘 행해서 익숙해진 버릇, 즉 습관은 차이가 크다는 말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탁월함은 한 차례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해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같은 꽃씨를 뿌려도 비옥한 토양에서는 크고 예쁜 꽃이 나오지만 척박한 토양에서는 꽃은커녕 제대로 살기조차 힘들다. 습관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90% 이상이 전부 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반복된 행동으로 습관이 생기고 대부분의 경우에 힘들어 생각하지 않고 이 익숙한 길을 답습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 익숙한 길이 좋은 길(환경)이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할 것이고,

나쁜 길이라면 결국 실패할 것이다. 꽃씨는 자신이 뿌려질 곳을 결정할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의지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를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아주 힘들 수는 있지만 꾸준히 행한다면 나쁜 습관은 없어질 수 있다. 굶어져서 자란 식물을 펼 때 한 번에 곧게 펴려고 하면 줄기가 끊어질 수도 있다. 점차적으로 펴고 고정시켜야 곧게 펴진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다(눅 22:39).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인도를 받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얻으셨다. 인생에 성령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이다. 무언가 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김성일**



주 앞에서 설 때까지

어느 날 거리를 지나며 본 가을 하늘과 단풍잎, 그리고 도심의 반듯한 건물들이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데 곧바로 드는 생각은 ‘아,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구나!’였다.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때가 되면 퇴색되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의 그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의 하늘과 땅,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계 21:1~2).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확언한 것처럼, 그날이 되면 우리의 썩은 몸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형체로 홀연히 변화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고전 15:51~52).

이처럼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주는 막연한 소망과 잠깐의 위로와는 철저히 구별되는 약속 있는 참 소망, 부활의 신앙공동체이다. 또한 정성과 노력만으로 복을 비는 세상의 것과 달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천성을 향하여 달음질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로 대속함 받은 것을 믿을 것이요, 나아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벗어나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다.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믿는 자들의 가는 길을 더욱 옥죄지만, 이 전쟁의 끝은 이미 정해져있는 이긴 싸움이기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과 감사뿐이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렇게 이 길을 통과하여 영생을 취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는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 믿음의 전당을 빛내고 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영혼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해지는 것이요, 그 결국은 영원한 영광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부름의 자리에서 힘껏 섬기고 인내로 완주하는 그 날이 오면, 이 길 끝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영광의 주님을 뵈게 될 것이다.

이국진 사모

하나님 눈치를 보라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는 많은 인권동아리가 있었고, 그 동아리들을 모은 인권동아리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연합회가 하는 일은 동아리들이 행사를 할 때 함께 도와주고, 학교 내 인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학교 중앙동아리로서 당연히 연합회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회장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회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소수자 인권동아리도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회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해야 했고,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이 행사와 동아리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크리스천인 저와 회장은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동아리 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부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부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우리 동아리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학교 커뮤니티에 인권연합회의 사과문과 해명문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보니 그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큰 말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연합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학교 안에서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결국 연합회는 해체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동아리들은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맞는지 분명 알고 있는데 사람 눈치가 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눈치가 조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국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시인해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장수정

달콤한 지혜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소풍 가기
에 딱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
자를 포장해서 가까운 습지 공원에 가
서 먹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서 나갑니다. 이때가 오전 11시쯤이었
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잠깐 하늘을 보
니 웬지 비가 올 것 같지만 우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심만 먹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기에 잠깐 비를 맞는 것
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화창한 날
씨일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저는 비 오
기 직전의 구름 가득 낀 하늘과 비를 좋
아해요. 어쨌든, 출발합니다. 따뜻한 피
자를 먹기 위해 습지 공원 근처에 있는
피자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습지 공원에
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넓게 펼쳐져 있
기에 가는 내내 콧노래가 나옵니다. 이
제 2km만 더 가면 피자가게에 도착합니
다. 큰 사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차가
덜컹덜컹하더니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
졌습니다. 황급히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껏습니다. 그리고 5분 후쯤 다시
켜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험사
에 전화하니 렉카가 도착하기까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순간 짜증이 났
지만, 저는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이럴
때는 역시 달달한 간식이 최곱니다. 언
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웃
음으로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
을, 저는 달콤한 지혜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생각에 이것이 바
로 훈련의 결과인가 하며 하늘을 보고
뿌듯해하던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
다. 아... 우산! 편의점까지는 500여 미
터를 걸어가야 하는데 말이지요. 순간
바뀌는 마음을 보며 역시 방심은 금물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허기를 채울 간식거리를 사와서 먹고 있
는데 렉카 기사님이 도착하셨고, 다시
10km나 떨어진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점심만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소
풍 가는 길이 멀고됩니다. 정비소에 가
보니 차 수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
고 합니다. 비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내
리는데 우산은 없고, 갈 데라곤 바로 옆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이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달달한 간
식, 달콤한 지혜입니다.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
니다. 여러분, 우산이 없을 뿐이지 제가
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니 나를 운치
있고 기분이 괜찮습니다. ‘언제 또 이런
여유를 느껴보겠어.’ 생각하니 그 시간
이 즐거워졌습니다.
차가 다 수리되고 보니 벌써 오후 3시
입니다. 비도 서서히 그쳐가고, 다시 피
자를 사러 갑니다. 피자를 주문하고 나
서 주변을 둘러보니 와~ 전통시장이 켜
네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우연히 필요

했던 물건을 구매하고, 뜻밖에 만난 재
미에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피자를 포장
한 후, 근처에서 먹을까 하다가 3km만
더 가면 습지 공원이기에 처음 정한 대
로 습지 공원으로 갑니다. 도착해서 자
리를 잡고 초록이 한창인 습지를 바라
보며 피자를 크게 한입 먹고 있는데, 문
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긴 했지만 아
침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됐구나. 어쨌면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인생의 모형을 경
험한 건 아닐까. 계획을 이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지만,
내가 세운 계획을 잊지 않고 주어진 상
황에 충실하다 보면 결국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 거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까?’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사소한, 그러
나 넘어지기 쉬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달
콤한 지혜를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
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를 알아야합니
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
야 기분이 전환되는지 말이지요.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뛰어넘고 어느 순간
꿈꾸던 그곳에 다다랐을 때, 내 지난 고
생을 돌아보며 ‘그래도 즐거웠구나. 하
나님께서는 매순간 나를 격려하고 계셨
구나.’라고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고요!
“나의 사랑, 나의 여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

박영신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친구여, 그대를 잊지 않았노라

“아저씨, 간식 가져왔어요!” 몇 차례 외
치자, 강 건너편 수풀 사이로 까맣게 그
을린 북한 군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건너오라 말하며 손짓합니다. 두만
강 상류,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실
개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강을 경계로
우리 일행은 중국 영토에, 건너편 군인은
북한 영토에 서 있었습니다. 일행 중 한
선배가 간식 봉치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
갔는데, 중간쯤 다다르자 갑자기 허우적
거리기 시작합니다. 급박한 순간, 건너편
북한 군인은 웃웃을 베풀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군인은 물에 빠진
선배를 구해서 우리 일행이 서있는 중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놀란 우리들과 달
리, 선교사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그 군
인과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
습니다. 대학생 시절, 탈북자선교단체를
통해 중국 단기선교여행을 하던 중 겪었
던 일입니다.
며칠 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형제들
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일행을 두 명씩 짝지어 탈북형제자매들
이 머무는 거처로 보내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방문
한 곳에는 2명의 스무 살 친구가 있었습
니다. 그 친구들은 남한에서 말씀을 전해
줄 선생님들이 왔다며 비슷한 또래의 우

리를 예수님 맞이하듯 반겼습니다. 둘러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공간에게
발각되더라도 하면 복송될 처지이니 소
리가 새어 나갈까봐 찬송가 한 곡도 맘껏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
이였으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툭툭 흘
리며 작은 목소리로 그 어느 때보다 간
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일
성, 김정일을 신으로 여기며 속아서 살아
왔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
마나 기쁘지 모른다’며, 목숨을 걸고 탈
북한 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당시의 상
황까지도 감사하던 그 친구들의 고백을
듣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
고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것
을 누리고 있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
습니다. 그 친구들은 더 놀라운 이야기
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북한으로 들
어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
다. 사선을 넘어 겨우 탈북한 사람이 죽
음을 무릅쓰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단
고 하니 숙연한 마음에 한동안 말을 잇
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탈북형제
자매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지하교
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북
한’,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는 어느 젊은
이들처럼 거리감 있는 주제였으나 같은
언어로 우정을 나눴던 탈북형제들을 만
난 이후, 저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의 생사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 늘 그 친구
들이 있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북진통일이 좌절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조인되던
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북한 동포들에
게 외칩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
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든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
의 기본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
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리라’는 목
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며 우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
시는 하나님(빌2:13)께서 총회장 목사님
을 통해 10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평
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지시하셨고, 우리
가 함께 모여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
드시 전쟁 없는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
여 굶주림과 암재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의 형제자매들을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애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땅을 잊지 않고 계
십니다. 평화통일된 조국에서 그 친구들
을 다시 만나 뜨겁게 부둥켜안고 감격하
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친구여, 나 또한 그대를 잊지 않았노라.”

정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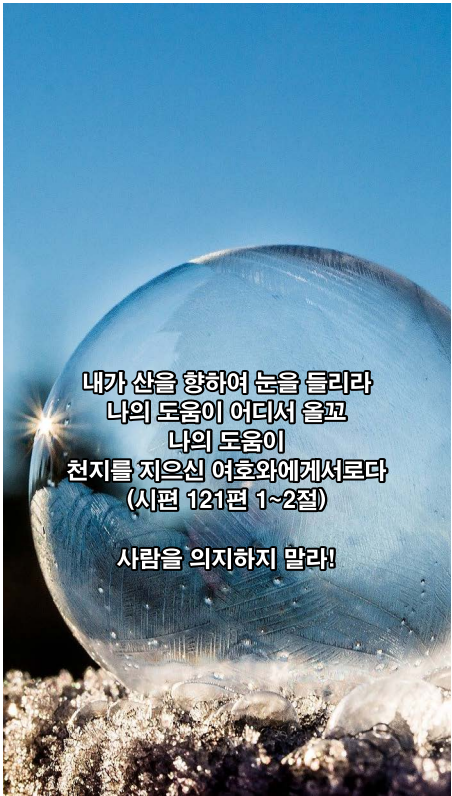
내 눈물의 병(bottle)

우리는 보통 슬프거나 기쁠 때 눈물이 난
다. 눈물은 지극히 솔직한 감정의 표현
이고,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눈을 부
드럽게 해주고 눈 안의 이물질질을 밖으로
빼내어 주는 고마운 일을 한다. 평상시
에 흐르는 눈물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도
할 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모두 모으
고 계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
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56:8).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 이
시를 지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
고 낙망되면 나의 눈물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병에 담으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을까? 다윗의 이 시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 “예수님, 주님의 눈물 병에 제
기도의 눈물을 담아주세요. 제가 기도한
이 순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생
시절 하나님께 약속한 나의 신앙의 기준
점이 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수님, 나의 눈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흐
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세
요.” 이 고백 덕분인지 지금도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볼 때 주르륵 눈
물이 많이 난다. 하루는 다른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했는
데 한 시간 내내 눈물만 흘렸다. 그랬더
니 하나님이 그 순간 내 필요한 모든 것
을 해결해주셨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의 기도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다. 눈
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집
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
무기를 통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 받
았고, 한나는 자식을 얻었으며, 나사로의
누이들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다. 오늘
도 다윗처럼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
으러 가보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
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2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